

학자금대출과 대학시절의 인적자본형성

조영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주소현(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학자금 대출제도는 현재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 진출 후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학자금대출제도는 자녀를 둔 가계의 재무의 사결정 주제이다. 때문에 학자금대출제도가 인적자본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대학생들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가계가 학자금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제도의 여부에 따라 어떠한 인구, 사회 통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학자금 대출제도가 어떠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분석하여 학자금대출이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수단인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인적자본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게 위하여 학자금대출 여부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중 2008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2008GOMS1 (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 중 4년제 대학을 졸업 후에 취득하여 월 소득이 10만원에서 5,000만원의 소득에 포함하고 연령이 21-40세인 4,807명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집단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집단 간의 인구 통계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소득의 경우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나이, 성별, 가구원 수 및 부모님의 학력의 경우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여부에 따른 가계의 재무적 상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입학 당시 부모님소득과 현재 부모님소득의 문항을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집단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집단의 차이는 입학당시와 현재 부모님 소득 두 부분에서 두 집단 간 유의수준 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계의 재무적 환경이 학자금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같은 결론이다.

학자금대출 여부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휴학횟수, 휴학기간, 어학연수 여부, 영어점수 여부, 재학 중 일자리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집단은 가계의 재무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앞에서 확인하였으며 휴학횟수, 휴학기간, 어학연수 여부, 영어점수 여부, 재학 중 일자리 기간 등 인적자본과 관련된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재무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 휴학 및 재학중일자리로

인해 학업에 방해를 받으며, 시간 및 금전의 투자가 필요한 어학연수나 공인영어점수의 획득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학자금대출제도가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계에서도 이로 인한 채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자금대출제도가 대학생들에게 고등기회의 형평성 뿐 만 아니라 대학생활의 인적자본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희, 윤석천, 박성준(2011). 한국의 인적자본 투자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선재, 이영화, 임광혁(2010). 인적자본 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3), 315-325.
- 김안나(2004). 인적자원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금 용자제도 활성화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안나, 이병식(2008).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교육 선택의 차이와 학자금 지원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39(1), 67-84.
- 김안나, 김성훈(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163-180.
- 김지하, 이병식(2009). 대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분석- 직접효과, 소득분위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7(3), 447-470.
- 이병식(2008).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한국교육학회 41(2), 135-154.
- 양정선, 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문숙재,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 투자량과 영향요인-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5), 49-66.